

IFLA 코펜하겐 대회 참관기

한 윤 옥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제63차 IFLA 총회가 1997년 8월 31일부터 9월5일까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는 Bella Center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2,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에서는 도서관협회의 사공 철 회장님을 비롯하여 33명이 참석하였다.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구성된 한국참가자들은 대회 참석을 전후하여 프랑스 파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하이델베르크, 영국의 런던 등을 거쳐 세계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필자는 A팀에 소속되었지만 프랑스 파리를 돌아보는 여정에는 합류하지 못하였고 코펜하겐 공항에서 합류하였다. 사실 필자는 금년 4월 중순경까지도 총회에 참석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총회의 개최 시기가 2학기 시작 후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리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으로 사람 사는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인지 어느 봄날에 핀란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날아든 e-mail 때문에 코펜하겐까지 가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렇게 탐방기를 쓰게 되었다. 대회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르지만 코펜하겐에서의 나의 경험에 바탕을 두어 일기식으로 적어나감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총회와 코펜하겐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싶다.

8월 31일

개강하고 일주일. 아직 방학의 여운이 몸과 마음에 남아있어 나른함과 미진함, 강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이 뒤섞여 혼란스럽다가 겨우 워밍 업이 되려나 싶는데 다시 일주일의 공백을 갖고 먼길을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거운 한편 덴마크에 대한 기대로 마음 한구석에서 부풀어오른다. 지금부터 꼭 10년전 영국의 브라이튼에서 IFLA 총회가 열렸을 때 우연히 좋은 기회를 만나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일행과 함께 브라이튼, 런던, 코펜하겐, 서베를린, 동경을 거치면서 대표적인 국립도서관들을 방문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 보았던 코펜하겐이 어떻게 변하였을까? 안개가 살짝 끼어있던 공항, 나를 감탄시켰던 티보리가든의 발레와 오케스트라 공연들, 자그마한 인어동상과 조용한 바닷가. 지하층의 가게에서 유리창을 도보 높이로 올려내어 진

열된 초코렛을 보여주던 길거리의 어느 특이한 가게 진열창, 길으로 보기에 호텔같이 보이지도 않던 곳의 내부가 너무 아름다워 왕녀라도 된 듯 황홀하게 하루 밤 묵었던 코펜하겐의 팔레스 호텔은 여전히 인디안 핑크색으로 장식되어 따뜻함과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만 하다. 또 학교도서관 연구프로젝트 팀과 핀란드의 리사를 만날 생각을 하니 걱정 반 반가움 반으로 가슴이 뛰는 것 같다. 아무튼 가자. 코펜하겐까지의 직항노선은 없고 런던 히드로 공항까지 12시간, 그곳에서 다시 코펜하겐까지 2시간가량 가야만 한다. 밥소사 거의 15시간은 비행기를 타야하나 보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KAL 비행기에 올랐는데 아니 분명히 이코노미 클래스였는데 왜 이렇게 좌석이 크고 여유가 있을까? 거의 침대처럼 누워지는 좌석에 사이드테이블까지 있어 돋보기 안경집을 놓을 수도 있네. 이 무슨 황재람!

이륙 직후 마의 5분이 무사히 지나 후유 한숨 돌리고 딸아이가 기록하라고 사다 준 다이어리에 회의

날짜별로 일자를 적고 IFLA '97 Copenhagen Final Announcement 에서 흥미있는 주제분과를 골라보고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본다.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난이 눈에 띈다. Tivoli, Art Museum, Royal Theatre? 아하! 왕립극장이 있구나 이곳을 가고 싶다. 티켓을 Tour Desk에서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월요일 회의장에 도착하면 등록 마치는대로 이일부터 해야겠다. 히드로공항에서의 경유시간이 짧아 혹시 비행기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있었지만 다행이 SAS 비행기를 탔다. 이제 코펜하겐에서 내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일행들을 만나 전용버스를 타고 코펜하겐의 외곽 지대에 위치한 호텔에 가서 여장을 풀었다. 첫날밤이라 그런지 잠도 잘 안오는데 웬 기차소리가 이렇게 끝도 없이 들리는걸까? 누가 도대체 밤기차가 낭만이 있다고 그랬지? 꼭 나를 깜깜한 터널 속으로 한없이 끌고 들어가는 것만 같다.

9월 1일

호텔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회의장으로 전용버스를 타고 갔다.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버스로 30분은 걸리는 곳에 Bella Center 가 있고...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등록대에 가서 이름을 대고 자료를 받았다. 자. 이제 왕립극장의 표와 프로그램을 알아보아야 할텐데... 나이 좀 들어보이고 마음이 좋아보이는 자원봉사자를 찾아 물으니 9월부터 시즌이 시작된다면서 아이다와 돈조바니가 공연될 것이라고 한다. 표는 Ticket office에 전화 걸어 구해야 한다면서 전화번호와 주소를 친절하게 적여준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미 시작된 여러 분과중에서 무엇부터 찾아보아야 할지 난감하다. 발표주제와 자료번호, 발표장의 번호 및 위치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맞추어 찾아 다니는 것도 큰일이다. 여간 빠릿빠릿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자료더미 속에 파묻혀 여기 저기 발표장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한국

의 일행들과 마주치면 합류하기도 하면서 첫날의 오전은 그냥 시간이 가버렸다. 요령이 필요하겠다. 알고보니 나누어준 자료들중에는 분과별로 발표되는 주제와 방번호, 자료번호를 시간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조그만 수첩같은 것이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듣고싶은 주제 발표들을 놓치지 않고 자료와 짝맞추어 잘 찾아다닐 수 있겠다. 일행들중에 마포도서관, 인천 중앙도서관, 용산도서관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 점심을 함께 하고 다시 오후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데 가장 큰 것이 Opening session일 것 같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나는 핀란드에서 올 리사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떠나오기 전에 내 e-mail 에 대한 답을 못받아 불안하다. 할 수 없이 메시지보드에 C홀 가까이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겠노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오가는 사람들을 살펴본다. 드디어 낮익은 얼굴이 나타난다. 영국 Wales 대학의 하계대학원(그때 나는 학교도서관과 시청각자료 두 코스를 선택하였었고 리사는 학교도서관 코스만 듣고 돌아갔다)에서 만난 이래 5년만에 만나는 것이다. 반갑게 반갑게 포옹을 하고 그녀를 살펴본다. 리사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보다 머리모양도 더 예쁘고 단정해 보이는데 나는 많이 상한 것 같아 슬그머니 속이 상해진다. 얼마전에 다리를 다쳤다는 그녀는 공항에서 짐이 안나와 옷도 못 갈아입었다고 한다. 걱정을 함께 하고 남편과 아이들의 안부 등을 나누면서 가족 사진을 서로 보여주기도 하는 사이에 어느덧 Opening Session 행사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 개회식에는 참석을 못하였지만 반가운 사람을 만나 아쉬움이 없다.

저녁에는 덴마크 문화부 장관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일행 모두가 갔다. 참석자 모두 먹을 수 있을만큼 넉넉한 음식이 나올까 걱정되어 우리 일행은 한식식당에 가서 저녁을 일차 먹고 리셉션 장소로 갔다. 부패와 약간의 공연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Rutgers 대학 Douglas Library에서 Reference Service Coordinator로 일하고 있는 Thelma

Tate 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한국에서 왔다고 반가와하면서 그곳 출신 한국 교수들의 이름을 대며 안부를 묻는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을 주제로 하여 IFLA 에 프로젝트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관심있는 사람들을 찾는 중이라고 한다. 디지털도서관이 아니고 이동도서관이라고? 미국의 Rutgers 대학에서 일한다는 사서가 이동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것은 나에겐 좀 의외였다. 내가 의외라는 이야기를 하니 그녀도 웃는다. 아직도 미국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학교와 자동차를 갖지 못한 사람, 컴퓨터를 통한 도서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서 미국은 누구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 잘 다룰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면서 웃는다. 지난 번 교수연수회때 우리학교의 총장님도 이제 더 이상 책을 사는데 돈을 들이지 않을거라고 하면서 전자도서관을 들먹이셨는데 나는 왜 그런 것과 반대되는 시대역행적인 이런 소리만 들으면 반가와지는지 모르겠다. 하도 반가워서 한국에 가면 내가 당신의 의사를 알리고 이동도서관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접촉하게 하겠노라고 했더니 좋아하면서 e-mail 주소를 남긴다. 혹시 이동도서관에 관심있는 분들은 tthe@rci.rutgers.edu 로 연락을 취해도 좋을 것 같다.

9월 2일

둘째날이다. 가장 흥미를 끄는 분과는 어린이도서관 코너이다. 방을 찾아 가니 벌써 시작이 되었는데 자리가 모자라 바닥에 앉고 서고 열기가 확확 넘친다. 어린이를 위한 덴마크의 문화와 문학을 주제로 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정책, 어린이자료의 경향이 발표된다. 이어서 주제발표집에 미처 실리지 않은 논문이 발표되는데 이것이 흥미를 끈다. 이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강요하지 말라고 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인류는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발명하기 전에는 독서보다는 듣고 말하기에서 주로 정

보를 얻었으며 그 이후에는 인쇄매체가 주된 형태였으므로 독서가 이야기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이제 다시 활자 이외의 자료가 활개를 치니 어린이들에게 구태여 독서를 강요하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정보습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 요지인 것 같다. 글세 나의 평상시 지론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아무튼 흥미롭다. 그런데 늦은 바람에 자료를 구할 수 가 없다. 마침 옆에 앉아 있던 탄자니아에서 왔다는 사서에게 부탁하여 복사를 하었는데 알고보니 이것도 자료쿠폰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을 경험부족이다. 이제는 잠시 다음의 시청각 자료 코너에 가기 전에 왕립극장 티켓을 구하기 위하여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중전화카드로 전화를 하는데 도무지 신호가 이상하다. Information Desk에 가서 다시 묻고 또 시도하고 다시 묻고 수차례를 되풀이 하니 슬그머니 창피해진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그럴리도 없겠지만 왜 저렇게 왔다갔다 하나 이상하게 볼 것만 같다. 하지만 어쩔랴. 나는 왕립극장에 꼭 가고싶는데...

드디어 친절한도우미가 나에게 주었던 번호가 잘못된 것임이 판명이 되고 다른 번호를 얻어 다시 시도를 해본다. 이번에는 성공이다. 드디어 신호가 가고 통화중 소리가 나고

다시 하고 또 하고... 겨우 신호가 떨어졌는데 맵소사 덴마크말로 지시가 나온다. 포기. 다시 도우미의 도움을 청하였더니 키가 크고 잘생긴 도우미아저씨가 따라나선다. 자기도 간혹 왕립극장의 표를 ticket office에 전화하여 구하는데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인내를 요한다고 하는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시간을 너무 빼앗는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그래도 나는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고 전화를 거는 사이에 그 사람의 눈치만 살피본다. 아직도 통화중. 드디어 그 사람은 몇 개인가의 번호를 차례 차례 눌러가면서 원하는 요일, 원하는 자리의 등급 등을 묻는다. 결과적으로 목요일 8시 공연의 티켓을 예약하였는데 목요일 5시까지의 표의 수령을 끝내야 유효하다

고 한다. 내일 전체가 관광갈 때 틈을 보아 티켓을 받아야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나니 시청각자료 발표 시간으로 예정되어있던 2시간 30분이 어느 틈에 흘러가 버렸다. 한숨을 돌리고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용자교육 코너에 갔다. 이곳 역시 발딛을 틈도 없고 열기가 가득하다. 저녁에는 City Hall 리셉션에 가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 온 일행들끼리 모여 오붓한 저녁을 먹었다.

9월 3일

삼일째 되는 날이고 실제적인 주제발표들은 오늘 대부분 끝나게 된다. 우리 일행은 짬을 내어 코펜하겐 시내를 둘러보기로 하였다. 국회의사당, 왕궁, 보물창고, 인어동상, 여신과 황소 4마리에 얽힌 전설이 담겨있는 Gefion 분수대, 여왕이 타고 다니는 요트가 묶여있는 바닷가 등을 돌아다니며 관광을 즐겼다. 덴마크의 여왕은 참으로 부드럽고 여성스러움이 넘치는 고운 미모였고 아들 둘은 동화 속의 왕자들처럼 잘도 생겼다. 여왕과 모후, 두 왕자가 사는 왕궁들은 광장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내부는 볼 수 없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규모는 영국의 왕궁들보다 검소하고 작아보였다. 티보리가든에 일행이 간 사이에 나는 잠시 짬을 내어 왕립극장에 가서 티켓을 받아왔다. 티보리가든을 구경한 우리 일행은 호텔로 돌아와 잠시 쉬었다가 도서관협회장이 주최하는 도서관인의 밤 리셉션에 참석하였다. 손님으로 미국의 하수진박사, 일본의 김용원선생님,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오클라호마 대학교 도서관학교 교수 등이 초대되었다. 오래동안 고국을 떠나 살면서 그리고 살았다는 허박사의 노래솜씨와 어깨춤이 일품이다.



《오른쪽에 필자》

9월 4일

오늘은 주로 각 분과별로 워크숍이 열리는 날이다.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도서관 분과를 찾아갔다. 정식명칭은 School Libraries and Resource Centers joint with IASL : Workshop 이고 다루어질 주제는 Principals and School Librarians Working within an Information Literate School Community 이다. Part I과 Part II의 두부분으로 나뉘어 오전, 오후에 열리게 되어있는 워크숍은 Part I 이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 of the Section of school libraries 였으며 Part II 는 Research workshop with the International Reference Group 이었다. 6월 하순경이었으나 오스트레일리아의 Lyn Hay 로부터 아침 session에 등록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었고 떠나 오기 며칠 전에 Tony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등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자료걱정은 안해도 되겠거니 했는데 전일의 어린이 도서관이나 이용자교육 발표장에서 보던 상황이나 열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사람이 적고 방만 덩그마니 컸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견학을 갔고 관련자들 위주로 워크숍이 이루어지는 탓인가보다. 아무튼 오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James Henri 와 Lyn Hay, 캐나다의 Dianne Oberg, 뉴질랜드의 Penny Moore, 아이슬랜드의 Hafdis Doegg Hafsteinsdottir 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중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의 발표자들은 학교도서관 프로젝트 팀의 리더였다. 오후에는 다시 학교도서관 분과의 국제연구프로젝트 팀에 속하여 있는 7개국의 8인이 모여 프로젝트 수행날짜와 해야 될 일들, 질문서 검토 등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 지역에서 100-150명의 응답

자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보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일본에서 온 분은 청산학원 대학도서관의 관장으로 IFLA 학교도서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오래동안 IFLA 일에 관여하였다고 한다. 이 일을 어떻게 잘 해나갈지 걱정스러운 가운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여 프로젝트에 관여하고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다음해 암스테르담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우리 일행들과 전용버스를 타고 다시 중국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나는 왕립극장으로 갔다. 외국영화에서 오페라 장면이 나오면 보이던 화려한 극장을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된 것이다. 얼마나 근사한가! 벽에 붙어있는 초상화, 벽난로와 대형거울, 화려한 조명등, 목직의 벨벳커튼, 나무로 된 마루바닥, 무대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좌석이 배치되어있는 층 배열은 발코니형태를 이루고 있어 우아함을 더해준다. 돈조바니의 무대장치는 너무 소박하다 싶을 정도로 단순화시켜 일반적인 오페라무대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귀에 익은 몇몇 아리아와 지극히 아름다운 지휘자의 몸놀림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 밤 11시가 넘어 오페라는 끝나고 기차역까지 갔지만 마침 기차표를 살 동전이 없어 늦게까지 문열고 있는 가게를 겨우 찾아 소프트아이스크림을 사는 등의 해프닝을 겪은 후에 가까스로 기차를 타고 외곽에 위치한 호텔로 무사히 갈 수 있었다. 후유! 한숨을 돌리고... 덴마크가 원산지인 칼스버그 한병을 미니바에서 꺼내 축배를 들었다.

9월 5일

오늘은 IFLA 산하 각 주제 분과별 위원회의가 열리는 날이라 그런지 회의장이 한산하다. 아침 9시 어제 약속한대로 일찍부터 열려있는 카페에 갔더니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임스와 린, 핀란드의 리사, 캐나다의 다이안이 이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합석하여 미진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의 Standing Committee 회의에

옵저버로 들어갔다. 위원으로 되어있는 서양국가들의 몇사람 외에 동양권에서는 일본인 위원이 있다. 논의되는 안건중에 유네스코 학교도서관 선언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벌써 3차례 검토되고 제안된 상태였으며 그것을 다시 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더니 공식적인 문서들의 번역 문제를 이야기 한다. 위원회장이 차례차례 칠레에서 온 위원부터 시작하여 스페인어로, 프랑스어로... 하면서 일본인 위원은 참석은 안하였지만 일본어로 번역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한글은? 속이 상해진다. 그런데 옆에서 리사가 속삭인다. 저쪽 코너에 앉아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면서 웃는다. 고개를 가웃거리는 나에게 그녀는 그가 CPPT의 Ken Haycock이라고 한다. 웨일즈에서 학교도서관 강좌를 수강할 때 그녀는 Information Skill 을 주제로 삼아 리포트를 작성하였고 나는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 을 주제로 삼았다. 내가 그 개념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하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전날 리셉션에서 그를 만났다면서 귀뜸을 해준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찾아가 인사를 하였다. 내 소개를 하고 CPPT 를 우리나라의 사서교사들에게 소개하였다고 하니 고맙다면서 굉장히 좋아한다. 자신은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hip 의 회장일도 본다면서 British Columbia 대학의 교수직 명함과 IASL 회장직 명함 두장을 건네주고 앞으로 연락하자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이론의 원조를 만나다니... 기뻐하는 나를 바라다 보면서 리사는 덩달아 신이 나 한다. 참 좋은 사람이다. 다시 웨일즈대학의 학교도서관을 담당하였던 Huw 선생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일부 폐장이 된 곳도 있는 전시코너를 돌아보는데 어느 코너인지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문 포스터가 눈에 띈다. 여러나라 말로 되어 있는 포스터가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 일본한자로 된 공공도서관 선언문이 유독 내눈에 크게 다가온다. 일본은 공공도서관 선언문의 공식적인 홍보에도 끼어있었구나. 조금 전 학교도서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던 학교도서관

선언문에 관련된 공식적인 유인물의 몇 개국어인가로의 번역문제 건이 떠올라 새삼 그들의 활동이 부러워지면서 우리도 세계로 눈을 돌리고 우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전시장 뒤쪽으로 가니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북구 국가들의 어린이도서관 코너가 있다. 내 연구실의 절반을 꽉 채우고도 남을 커다란 밤색의 곰인형이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코너의 규모는 다른 어떤 전시코너보다도 커서 그들의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였다면 어땠을까? 전자도서관에 가려져서 그저 구색맞추는 정도로 어린이도서관 코너를 마련하지나 않았을까? 자료들을 살펴보는데 눈먼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Textile Picture Book)이 있다. 상상도 못하던 예쁜 형태이다. 그림의 윤곽은 점자로 되어있고 윤곽

안의 부분은 코끼리이면 코끼리의 가족으로, 사슴이면 사슴의 털가족으로, 눈보라가 치는 곳을 걸어가 는 소녀의 모습은 용단으로 돌출되어 있고 숲은 전 나무 앞으로 덮혀있다. 물론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에도 아쉬움이 없게 해 놓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인쇄매체를 여전히 환상적일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 가능하다면 모두 집어오고만 싶었다.

이곳을 돌아보는 것을 끝으로 리사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왕립극장 표를 구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어주었던 건강한 도우미를 찾아가 한국에서 준비해간 열쇠고리를 주고 고마움을 표하였다. 열쇠고리에 그려져 있는 널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통적인 한국여자들의 놀이라고 설명하였더니 덴마크의 어린이들도 그와 같은 놀이를 한다고 한다. 이제 Bella Center 에 안녕을 고하고 떠나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 참 진진한 일주일간이었다.

原 稿 募 集

〈도서관문화〉誌는 1,000여 단체회원과 1,500여 개인회원의 대변지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2. 보내실곳 : ① ③ ⑦-⑦ ⑩ ⑫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전화 : (02)535-4868 FAX : (02)535-5616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도서관문화” 편집실 영구비치용)를 첨부 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도서관문화 편집실